

광주·전남 식품업체들 “HACCP 잡아라”

〈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대상 확대...해남고구마조합 등 aT 지원사업으로 도전
현재 광주 265개·전남 1685개 업체 인증...전국의 10.3%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의무대상 업체가 전국 5000여 개로 확대되면서 광주·전남 식품업체들도 인증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9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역 HACCP 인증완료 업체는 지난 달 말 기준 광주 265개·전남 1685개 등 1950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인증업체 1만8779개의 10.3% 수준이다. 전남 인증업체는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4344개), 경북(1847개), 충남(1723개)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 인증실적은 세종(146개), 울산(166개)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HACCP 인증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건강기능식품제조업 등으로 구성된



‘식품 인증 업소’와 식육 포장처리업, 식육축적판 매가공업 등 ‘축산물 인증업소’,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나뉜다.

광주지역은 식품 인증 89개와 축산물 176개 등 265개를 보유하고 있고, 전남은 식품 471개·축산물 1214개 등 1685개가 있다.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는 총 59개로, 전남에만 5개 있고 광주에는 없다.

HACCP 인증을 받으면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는 마크·현판 등이 주어지고 대형 유통매장 등에 우선 납품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광주 2개·전남 6개 등 190여 개의 중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HACCP 인증을 위

한 ‘식품 품질·위생 역량제고 지원사업’을 벌였다.

‘식품 품질·위생 역량제고 지원사업’은 HACCP 인증, 품질개선, 상품개발 및 디자인 개선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는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 ‘하우스팜마’·목포 선일물산(주)·나주 두레박협동조합이 심층역량제고 사업에 참여했고, 광주 ‘한국제다’·해남고구마협동조합·구례 지리산베리닷컴·담양 ‘농업회사법인 산들해썹’·광양 ‘쥬광양에가면’ 이 단기 역량제고 사업을 통해 식품 품질·위생 상담을 받았다.

지난 2008년 네덜란드에 첫 수출을 하며 유럽·동남아시아 등으로 판로를 넓힌 해남고구마협동조합은 이 사업을 통해 HACCP 인증에 도전한다.

나주 두레박협동조합은 aT와 협력해 지난해 9월 대표 상품 곱창의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성사시켰다. 이 조합은 기세를 몰아 축산물 가공업 영업허가를 따고 ‘사회적기업 우수 공로자’로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aT 단기역량제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쥬광양에가면은 티백 형태로 새싹삼차 상품을 개발해 타사와 차별성을 뒀다.

aT 관계자는 “다음 달 말까지 올해 식품 품질·위생 역량제고사업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HACCP 인증지원 신청 업체에게는 5~8차례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고 청년창업기업은 1+1 컨설팅과 디자인·상품개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광산구 오전 10시~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에서 ‘2020년 HACCP 사업 설명회’가 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 주최로 열린다.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사전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85.28 (+8.56)	↓ 금리(국고채 3년) 1.33 (-0.02)
↑ 코스닥 670.18 (+5.48)	↑ 환율(USD) 1177.20 (+0.50)

광주상생카드 판매·이용액 800억 돌파

광주은행, 2년째 구매 동점 지역 9만여 가맹점서 사용

광주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판매액과 이용액이 지난 달 800억원을 넘겼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상생선불카드’ 판매액은 617억원, ‘상생체크카드’ 이용액은 25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상생카드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와 통장계좌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기명식 체크카드 2종으로 발행되고 있다. 상생체크카드 발급자 수는 3만418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광주상생카드는 6개

월 만에 판매액 300억원을 돌파한 이후인 기록이다.

광주은행 임직원은 설을 앞두고 이달 한 달 동안 1억1800만원 상당 광주상생카드와 8억46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며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도 광주상생카드 6억500만원과 온누리상품권 6억4800만원을 구매했다.

광주상생카드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지역 내 9만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한도 50만원 내에서 1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이 카드는 광주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 모바일 웹 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성, AI 세탁기·건조기 ‘그랑데’ 출시

업계 최초 세탁에서 건조까지 올인원 컨트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세탁기·건조기 ‘삼성 그랑데 AI’를 29일 출시했다.

소비자의 사용습관에 맞춰 세탁과 건조를 해주는 가전세트, 업계 최초 올인원 컨트롤 기능을 탑재했다. ‘올인원 컨트롤’ 기능은 세탁기에서도 건조기를 작동할 수 있고, ‘AI 코스연동’으로 특정 세탁코스를 선택하면 이에 맞는 건조코스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코스와 옵션을 기억해 컨트롤 패널에 보여주는 ‘AI 습관 기억’도 추가됐다.

그랑데 AI는 이미 연간 1300만건이 넘는 국내 소비자 사용 데이터를 학습했고 쓸수록 진화해 소비자 사용패턴에 최적화된 코스를 추천한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그랑데 AI 세탁기는 빨래 무게를 감지해 알맞은 양의 세제를 자동으로 투입하고 오염 정도에 따라 헹굼 횟수를 조절하는 등 ‘AI 맞춤세탁’ 기능도 탑재됐다. 삼

성 독자 기술인 ‘버블워시’와 초강력 워터샷이 적용돼 세탁에서 헹굼, 탈수까지 30분이면 끝낼 수 있다.

그랑데 AI 건조기는 먼지와 녹, 잔수 걱정이 없는 ‘3무(無) 안심’ 위생관리를 구현했다. 보풀이나 먼지를 걸러주는 2중 올인원 필터에 마이크로 안심필터를 추가해 3중 필터를 갖췄다. 이에 따라 열교환기 상태를 1년에 한 번 확인하는 정도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이 밖에 열교환기 연결부에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코팅 처리를 했고 열교환기를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유지했다. 건조 시간이 약 30% 빨라져 셔츠 코스 기준 셔츠 한장을 36분 만에 세탁하고 건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랑데 AI는 색상 등 옵션에 따라 세탁기 184만9000~194만9000원, 건조기 189만9000~199만9000원이다.



인공지능 세탁기·건조기 ‘삼성 그랑데 AI’를 29일 모델들이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7월부터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 귀국할 때 찾는다

오는 7월부터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출국할 필요가 없어진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 시점에 받아 휴대한 채 나갔다가 돌아와야 했다.

역시 7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세관 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비용을 수출입회사가 냈지만,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신 내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까다로워지는 규정도 있다. 4월부터 해

외지구 구매대행자가 수입 물품 저가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면, 구매대행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해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로 미납 관세가 발생하면 납부 책임을 구매자에게만 물었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금호타이어, 아우디 Q5에 SUV 신차용 타이어 첫 공급

금호타이어는 독일 아우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Q5’에 크루젠 프리미엄 KL33을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호타이어가 아우디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크루젠은 도심형 SUV에 맞춰 개발한 SUV 전용 제품이다. 고성능 SUV에 최적화된 스포츠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온로드에서의 핸들링·제동력·고속 주행 안정성 등을 갖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SUV 전용 타이어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크루젠 프리미엄’은 고급세단의 정속성과 편안한 승차감을 SUV에서도 누



킬 수 있게 한다고 금호타이어는 설명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류재선 전기공사협회장 몽골 정부훈장 받아

류재선(사진) 한국전기공사협회장이 지난 28일 몽골 정부훈장을 받았다.

류 회장은 한국과 몽골 전기·에너지 분야의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 몽골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18년 한국·몽골 협력 포럼에 참석한 뒤 전기산업계 대표위원으로 활동했다.

이같은 교류 노력으로 지난해 4월 한국 산업기술시험원이 몽골 외곽 광산지역에 국내 최초로 맞춤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했고, 대한전선은 몽골 진단병원 통신 솔루션 구축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전기공사협회는 ▲‘2019 몽골 광해관



리기술학교’ 개최 ▲몽골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관계자 친환경 에너지 시설 연수 ▲몽골 공무원 대상 ‘국내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기술 및 정책’ 전수 등 다양한 사업을 유관기관과 진행하고 있다.

류 회장은 “몽골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의 핵심 지역”이라며 “전기공사협회와 몽골 간 상생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